

[총서기의 인민정감]

“백성들의 일을 한시도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 없다”



상해시 장녕구 북신경가도 신경 6촌에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12호 건물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년 6월 23일 찍음) / 신화넷

“백성들의 일을 한시도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 없다.” 지방에서 사업할 때 습근평동지는 어느 한번 취재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세월이 흘러가도 단심은 변함없었다. 2022년 10월, 20기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났을 때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선언했다. “인민과 함께 생각하고 인민의 당부를 실행함으로써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끊임없이 현실로 만들 것이다.”

마음속으로 항상 걱정하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인민에 대한 인민령수의 진지한 정감이다.

“한시도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은 초심을 반석과 같이 굳건히 하여 창상과 비바람을 겪어도 시종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부용 헬멧(矿工帽)을 쓰고 광부용 작업복을 입고 천메터 깊이의 지하갱에 들어가 로동자들과 찍은 사진은 당시 절강성당위 서기를 맡고 있던 습근평동지가 절강 장광탄광에 가서 조사연구를 하던 정경을 생동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2005년 음력설 전야였다. 곤난중업원들을 위문한 후 습근평동지는 갱내에 내려가 광부들을 위문하겠다고 했다. 갱의 높낮이가 고르지 않아 키가 큰 그는 허리를 굽힌 채 1,500여미터를 걸었다.

한창 석탄을 채굴하고 있던 로동자들은 습근평동지가 자기들을 보러 갱에 내려온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일시에 그를 둘러쌌다. 습근평동지는 그들에게 탄광에서 안전생산은 최우선인바 반드시 광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들 기쁜

심정으로 갱에 내려가 일하고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지방에서 근무할 때 평일이면 항상 당직을 섰다.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어서였다.” 2015년 1월,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이렇게 회억했다.

인민이 걱정하는 바를 반드시 념려해야 하고 인민이 바라는 바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북주에서 재직할 때 습근평동지는 ‘장바구니’를 틀어주는 것을 대사로 삼았는바 매일 남새가격을 알아보았다. 보장것없어보이는 녹색잎채소는 민의를 담고 있으며 민심과 련결되어 있다.

“당지에는 ‘3일 동안 녹색잎채소를 먹지 못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말이 있다. 남새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정치이다. 지금 우리의 일부 기층간부 특히 일부 청년간부들은 이 방면의 문제를 출시하는데 이견 안된다.” 2023년 전국 량회 기간 강소대표단 심의에 참석했을 때 습근평 총서기는 이렇게 간곡하게 타일었다.

이는 의식주와 교통 등 생활의 기본요소, 난방, 량식, 기름, 소금 등 생활필수품, 백성들의 걱정거리, 고민거리, 애로사항을 시종 관심하는 것은 “한시도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 없다.”는 데 대한 가장 훌륭한 설명이다.

“한시도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은 우환의식을 가지고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야 하며 인민의 중탁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황하가 평안해야 천하가 태평하다.” 황하 보호는 중화민족의 영속적 발전

과 관계되고 억만 인민의 행복, 평안과 관계된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황하 상류, 중류, 하류의 9개 성, 자치구를 돌아보았다. 청해에서는 ‘맑은 강물이 동쪽으로 흐르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산서에서는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에 불리한 일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으며 산둥에서는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고찰할 때마다 하는 한마디 또 한마디 당부는 ‘황하가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해주는 행복의 강으로 되게 해야 한다.’는 목직한 약속으로 되게 했다.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일은 기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절강 제기(诸暨) 풍교의 간부와 군중들은 기층사회관리에서 ‘풍교경험’을 창조하여 모순과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데 중요한 계시를 주었다.

20여년전에 당시 절강성당위 서기를 맡고 있던 습근평동지는 ‘풍교경험’을 심본 소중히 여기고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반드시 군중에 의거해 인민을 위해 집행하는 가운데서 근본 취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2023년 9월, 습근평 총서기는 절강성에서 고찰할 때 풍교경험진련관을 참관하고 “당의 군중로선을 견지하고 인민내부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며 인민대중에 긴밀히 의거하여 문제를 기층에서 해결하고 맹아상태에서 해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기층관리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한시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습근평 총서기의 인도 아래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세시대 ‘풍교경험’을

끊임없이 견지하고 발전시키고 민의를 제때에 료해하고 민심을 효과적으로 모아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더욱 충실하고 더욱 보장이 있으며 더욱 지속가능하도록 했다.

“한시도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원히 태만하지 않고 과평길에서의 명석함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분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20차 당대회가 갖 폐막된 후 습근평 총서기는 섬서 연안에 가서 고찰했다. 남구촌 과수원에서 재배기술, 채집기술, 품종품질, 판매가격으로부터 촌민들의 소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사과 재배와 기타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등에 대하여 습근평 총서기는 아주 소상히 물어보았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함에 있어서 가장 간고하고 가장 변중한 임무는 여전히 농촌에 있다.” 집집마다 간직하고 있는 장부에는 깊은 정을 담은 습근평 총서기의 걱정이 깃들여있다.

새 로정에서도 초심은 변함없다. 복잡하고 준엄한 국내외 발전환경에 직면해 “용왕매진하는 분투 자세와 영원히 태만하지 않는 정신상태로 과감히 중임을 떠메고 열심히 실속있게 일해야 한다.”

“한시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책임감, 적극 담당하고 성과를 내는 정신으로 당과 인민을 위해 직책을 잘 수행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광범한 당원, 간부들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간절한 부탁이며 백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는 큰 당이 새로운 과평길을 잘 걷는 저력이기도 하다. / 인민넷 - 조문판

중앙사회사업부 :

사회사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해야

2월 22일, 북경에서 열린 전국 사회사업부 부장과 래신래방국 국장 좌담회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일전까지 전국 모든 성, 시, 자치구에서 이미 당위원회 사회사업 부문을 설립하고 직책을 전면적으로 리행하기 시작했다. 2024년, 각급 당위원회 사회사업부들은 사회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하고 사회사업의 고품질적이고 통일적인 조를 촉진하며 사회사업 령도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사회사업의 전반적인 효능을 부단히 높이며 사회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중앙사회사업부 주요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민의 래신래방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인민의 건의모집사업을 지도하는 직책을 담당해 리행하며 래신래방사업의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인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인민의 상황을 료해하며 인민의 지혜를 모으고 민심을 결집 시켜야 한다.

당건설로 기층관리와 기층정권 건설을 인솔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앙사회사업부의 중요한 직책이다. 회의에 따르면 2024년에 전국 사회사업계통은 ‘풍교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켜 ‘천만공장’ 경험을 학습 운용하고 ‘4가지를 기층에 내려보내기(四下基层)’ 제도를 잘 운용하며 ‘위법 문제를 발견하면 가두와 향에서 즉시 호르레기를 불고 각 부문에서 규정된 시간내에 보고를 하는’ 제도를 널리 시행한다. 하여 기층관리에서 ‘작은 말이 큰 수레를 끄는’ 문제점을 파헤치고 기층관리 수준을 힘써 향상시킨다.

전국 사회사업 체계는 업종협회와 상회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전국성 업종협회와 상회에서의 당 업무를 강화하며 업종협회와 상회의 개혁 전환 발전을 심화시켜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한다.

혼합소유제 기업, 비공유제 기업과 새로운 경제조직, 새로운 사회조직, 새로운 취업계층의 당건설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그들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한다.

자원봉사 제도와 업무 체계를 건전히 하고 중점 분야의 자원봉사 브랜드 건설을 심화하며 사회사업 인재 양성을 강화하여 자원봉사사업과 사회사업 인재 대오 건설 수준을 향상시킨다. / 신화넷

우리 나라 ‘농민 주도’의 마을계획 실시

식량안전과 생태안전의 최저선 및 력사 문화 보호선을 지키는 토대에 우리 나라의 마을계획(村庄规划) 실시에서 ‘농민 주도’의 특징을 명확히 한 동시에 ‘다규합일’(多规合一)의 개혁 방향을 고수한다.

자연자원부 국토공간계획국 국장 장병은 22일 매체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4년 중앙 1호 문건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기 위해 자연자원부와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은 최근 ‘천만공장’ 경험 학습 및 활용을 통해 마을계획 편찬의 질과 실효를 제고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문건은 현지 실정에 알맞게 분류하여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는데 현구역 차원의 통일조합을 강화하고 편찬 성과의 질을 높이며 토지정책의 융합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인도하였다. 하여 마을계획 편찬 작업 가운데 존재하는, 편면적으로 ‘전체 포괄’을 추구하는 현상, 성과 질이 낮은 문제, 실용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했다.

장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을계획이 도시계획과 다른 점은 바로 마을계획의 시행이 농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반면 도시계획의 시행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촌민의 의지는 계획의 시행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 도농계획법(法)도 농민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했고 농민들이 마을계획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자연자원부는 또한 마을계획 편찬 과정에서 촌민의 주제, 촌 당조직 및 촌민위원회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농민의 참여를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민 참여 동원 + 전문가인원에 재능 부여 + 지역의 계획인재 양성’의 개념에 따라 자연자원부와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은 농민들이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다규합일’의 마을계획과 향촌산업계획, 관광계획, 향촌진흥계획, 문화장작제품계획 등의 구별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촌급 조직의 역할을 발휘하고 촌민이 마을계획 편찬에 참여하도록 동원하며 농촌 치부 인솔자, 신형 농업 경영주체, 외지로 나간 로부종사자와 상업경영자가 계획을 내놓도록 인도하였다. 이 외 향촌책임계획자 제도를 내외 지역의 계획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것을 요구했다. / 신화넷

科学饮食 · 规律作息

健康未来

— 文明健康有你有我 —